

[자료: 外務省. 2021. 政府開発援助(ODA)国別データ集 2021.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files/100384974.pdf>. (2022년 11월 20일 검색)  
 国土交通省. 2005. 国土交通(交通)分野のODA実績. <https://www.mlit.go.jp/sogoseisaku/kotsu/oda/jisseki/index.html>. (2022년 11월 22일 검색).  
 国土交通省. 2022. 国土交通省インフラシステム海外展開行動計画2022(概要).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87099.pdf>. (2022년 12월 11일 검색)  
 国土交通省. 2021. 第3回日ASEANスマートシティ・ネットワークハイレベル会合について.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28620.pdf>. (2022년 11월 13일 검색)  
 이재용. 2019. [글로벌정보] 일본 - 정부의 아세안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현황. 월간 국토. 통권 457호, 89-91. 세종: 국토연구원.]

이재용 東京大学 공간정보과학연구소 박사과정 (lee@csis.u-tokyo.ac.jp)

## 중국



### 무역데이터로 보는 중국의 아세안 현물 ODA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10월 무역데이터 기준 유럽연합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또한 아세안은 일대일로 프로젝트<sup>1)</sup> 등 중국 정부의 핵심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2022년 1~10월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의 아세안 현물 OD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올해 1~10월 총 무역액은 7,985억 달러로, 유럽연합(7,114억 달러), 미국(6,398억 달러)보다 많다.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액은 4,639억 달러, 수입액은 3,346억 달러로 중국이 1,2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발효 이후, 중국의 대 아세안 무역액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올해 1~10월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총 무역액 13.8%, 수출 20.5%, 수입은 5.6% 증가하였다.

#### 중국의 대 아세안 현물 ODA

이 원고에서는 중국 해관총서 통계 시스템의 무역 방식 분류에 있어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에의 무상원조 및 기증물자', '기타 기증물자'만을 ODA의 범주로 보았으며,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1~10월 중국의 대 아세안 현물 ODA 금액은 1억 1521만 달러로,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공여한 전체 현물 ODA에서 약 18.52%를 차지한다. 아세안 내에서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주요 수혜국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현물 ODA를 받았다(〈표 1〉 참조).

1)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이란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해상 실크로드(一路)의 총칭으로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의 지역경제통합발전을 추진하는 장기 구상.

표 1 중국의 대 ASEAN 현물 ODA(백신 원조 포함)

국가	ODA 금액(달러)	글로벌 비중(%)	ASEAN 내 비중(%)
글로벌 전체	622,110,934		
아세안 전체	115,209,181	18.52	
미얀마	48,926,631	7.86	42.47
캄보디아	31,170,538	5.01	27.06
라오스	22,130,670	3.56	19.21
말레이시아	4,733,954	0.76	4.11
베트남	4,202,379	0.68	3.65
태국	2,352,690	0.38	2.04
필리핀	1,286,099	0.21	1.12
인도네시아	406,220	0.07	0.35

자료: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海关总署 2022; 海关统计数据在线查询平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 중국의 대 아세안 현물 ODA(백신 원조 제외)

국가	ODA 금액(달러)	글로벌 비중(%)	ASEAN 내 비중(%)
글로벌 전체	398,316,517		
아세안 전체	47,259,963	11.86	
미얀마	16,284,231	4.09	34.46
캄보디아	15,230,515	3.82	32.23
라오스	12,324,005	3.09	26.08
베트남	1,849,689	0.46	3.91
필리핀	1,136,729	0.29	2.41
인도네시아	406,220	0.10	0.86
말레이시아	28,574	0.01	0.06

자료: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海关总署 2022; 海关统计数据在线查询平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현물 ODA 품목(백신 원조 제외)

국가	품목
미얀마	염료,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가죽 제품, 목재, 종이 제품, 책, 방직물, 석재, 도자기, 유리 제품,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비금속, 전자제품, 차량, 완구, 의료기기 등
캄보디아·라오스	소금, 진흙,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가죽 제품, 종이 제품, 책, 방직물, 도자기, 유리 제품,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비금속, 전자제품, 항공기 부품, 의료기기 등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방직물,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베트남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방직물,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필리핀	화학 제품
인도네시아	화학 제품, 고무 제품, 전자기기 등
말레이시아	방직물, 비금속, 완구 등

자료: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海关总署 2022; 海关统计数据在线查询平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이 백신 외교를 통해 백신을 매개로 한 현물 ODA를 진행하여, 백신 원조 금액이 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이 대외 원조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고의로 중국산 백신의 가격을 높게 책정(화이자 19.5\$, 시노팜 72.5\$)했을 가능성이 있어(메디게이트뉴스 2020) 무역 상품 중 백신 등 약품을 제외한 데이터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2> 참조).

실제로 백신 등 약품의 대 아세안 현물 ODA 금액은 6,795만 달러로 아세안 전체 현물 ODA 금액의 5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얀마 3,264만 달러, 캄보디아 1,594만 달러, 라

오스 981만 달러, 말레이시아 471만 달러, 태국 및 베트남 235만 달러이다.

백신 등 약품 ODA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주된 수혜국이나, 태국은 ODA 수혜국에서 제외되어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은 현물 ODA를 받지 않은 아세안 국가가 된다.

아세안 각국에서 중국으로부터 현물로 받은 품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참고로 <표 3>은 무역 상품 코드 2자리를 기준으로 한 품목명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무역 상품 코드를 4자리, 6자리, 8자리로 조회했을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대 아세안 현물 ODA의 특징과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중국의 주요 수혜국으로, 공통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 깊이 관련된 중요 국가이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중국 제3차 국제개발협력 백서 주요 내용'(국무조정실 2021)에 따르면, 중국은 이 백서에서 중국의 개발 협력력이 5개 분야(정책, 인프라, 교역, 금융, 인적교류)에서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창출하는 통로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의 차우크퓨항(Kyaukpyu)에서부터 윈난성 난닝(Nanning)에 이르는 송유·가스관을 건설하여 새로운 에너지 도입 루트를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Phnom Penh)~시아누크빌(Sihanoukville)에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 시아누크빌에서의 중국 해군기지 건설 추진설이 있으며, 중국-라오스 철도는 이미 개통되었다. 위의 3개 국가는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 중요한 국가로 중국으로부터 비교적 큰 금액의 원조를 받고 있다.

위의 3개 국가가 중국의 대 아세안 현물 ODA에서 약 88%(백신 원조 포함)~92%(백신 원조 제외)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중국의 현물 ODA는 자국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GDP 및 1인당 GDP가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중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인류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지속해서 설파하는 이념이다. 국제사회 모두가 동반 성장하자는 이 이념에 근거해 볼 때, 현재 중국의 대 아세안 현물 ODA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요 이해 당사국 이외에도 여건이 어려운 국가들을 골고루 지원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국무조정실, 2021. 중국 제3차 「국제개발협력 백서」 주요 내용, 12월 22일.

메디게이트뉴스, 2020. 코로나19 백신 유력 후보 7개 가격은? 아스트라제네카 4500원~시노팜 8만2000원, 11월 16일, <https://medigatenews.com/news/2819128719> (2022년 11월 30일 검색).

海关总署, 2022. 2022年10月进出口商品国别(地区)总值表(美元值), 11월 18일.

海关统计数据在线查询平台, <http://43.248.49.97/> (2022년 11월 30일 검색.)]